

전임회장 이임사



2005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학회장으로 취임한 것이 벌써 1년이 되어 다시 이임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일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송구하게 생각됩니다만, 지난 1년간 한양규 전무이사를 비롯한 운영이사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큰 성과 없이 소임을 다하게 되어 무척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학회가 그 동안 꾸준히 발전 팽창하여 국내의 우수한 학회로 자리잡았고, 앞으로 세계 속의 학회로 계속 발전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서는 대내적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비하여 고분자 연구인력의 지속적인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대외적으로는 보다 활발한 학술 활동과 국제화를

통하여 저희 학회의 국제지위 향상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1년간 학회 운영에 애쓰신 한양규 전무이사와 여러 운영이사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의 번영과 국내 고분자산업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5년 1월 1일
전임회장 **김 영 하**